

전북중기청, 금융기관장 초청 신년 간담회 개최

“AI 피해기업에 1750억원 지원”

전북중소기업청은 17일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및 금융기관장이 참석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지원 등 지역내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의체로는, 기존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가 있으나, 내수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주의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도내 경기회복 등을 위해서는 지역내 금융지원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중기청은 지역내 수출확대 정책과 1,750억원 규모의 AI 피해 지원대책,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업별 동향 등을 설명했고 전북 경제산업분야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의 국내경기 동향 설명 등이

이졌다. 한편, 전북중기청의 올해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5850억원이며, 자금의 대부분은 직접 신용대출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전용자금 2,250억을 책정했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0.4%(이하) 대출이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AI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1,75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과 전주지지원봉사센터는 17일 전주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다.

“풍요와 장수를 기원하며...”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떡국 나눔 행사 실시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과 전주지지원봉사센터는 17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2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 300명에게 떡국 및 다과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평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설맞이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전북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 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

하기 위해 매년 떡국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설날은 풍요와 장수의 의미가 담긴 떡국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경영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농협, 설 연휴 금융거래 일시 중단

설 연휴 기간인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농·축협과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이번 금융거래 일시 중단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축협과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각각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중단 기간에는 모든 금융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 및 조회, 자동화기기(CD/ATM) 입금·출금·계좌이체 및 조회, 타 금융기관을 이

27일~30일까지 농·축협·농협은행 계좌 이용 제한

용한 농협계좌 입금·출금·계좌이체와 조회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체크카드는 설 연휴 첫날인 27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과 현금카드의 연휴 기간 동안 사용이 안 된다. 신용카드 이용과 하나모마트, a마켓, 주유소 등 전국농협 유통·경제사업장 이용은 가능하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 접수는

고객행복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가능하다. 또한 28일 오후 4시부터 29일 오전 2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온라인 결제 및 NH농협카드(채움) 모바일 간편결제(올원페이) 등 신용카드 일부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세뱃돈 등

/안재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안정용 배추·무 발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설 성수기 무·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6일까지 가격안정용 무 2,000톤과 배추 3,000톤을 시장에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되는 물량은 시중가격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매유통처에 우선 공급되며, 감치가 공급체 등 대량수요처로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및 하나모마트, 그리고 지난해 농식품부와 신선농산물 유통확대 MOU를 체결한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세부 공급처는 aT홈페이지(www.at.or.kr) 또는 aT수급사업부로부터 문의할 경우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시중 소매가격보다 40~50% 가장 할인하여 무는 1개당 1,500원, 배추는 포기당 2,500원 내외로 판매된다. /안재용 기자

농진청, 정부업무특정평가 '우수'

지역특화품목 가공·판매·홍보 지원 창업 농산업체 시장 진입 도모 높이 평가

농촌진흥청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특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정부업무특정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업무 특정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정부3.0 등의 부서에 대해 해마다 평가·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국정과제와 정부3.0' 등 평가부문에 걸쳐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업의 6차산업화의 주요 성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귀농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품목의 가공·판매·홍보 지원으로 농촌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 적

극적인 기술사업화와 사후 지원으로 창업 농산업체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스마트팜 ICT 관련 기기 부품 표준화로 농가의 초기 온실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빅데이터 활용 정밀생육관리 기술지원 및 여성농업인이 쓰기 쉬운 농기계 개발·보급과 안전 교육을 확대해 노동력을 절감한 점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청근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우수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현장에 확산하고, 올해도 농촌진흥청 Top 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오늘 고교 경제토론회 개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경제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내 고등학생들의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과 결선으로 나눠 2일에 걸쳐 진행하며, 경제퀴즈 대회, 교양강좌 등도 실시한다. 특히 경제퀴즈는 대회 둘째날 경제상식 관련 문제로 진행하고 교양강좌는 전북도립국악원 김연교수의 판소리 강의 및 시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 이후 7회째 연속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생 경제토론회는 도내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금융 및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스마트공장 의향서 접수

24일 오후 2시 전북경진원서 설명회 개최

최근 선진국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생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업에 ICT를 결합해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판매의 전 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생산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활용돼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똑똑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향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업체를 접수한 결과,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관련업계에 대한 추경을 요구해 기존예산 대비 큰폭으로 증액되기도 했다. 이같이 스마트공장 사업이 중소기업

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당초 스마트공장 사업이 낮은 인지도로 중소기업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 창의실에서 정부 스마트공장추진단과 공동으로 '스마트공장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의향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홈페이지(http://jeonbuk.kbiz.or.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의향서 서식을 작성해 전북지역본부에 팩스(214-5166) 또는 이메일(sj1110@kbiz.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 참가신청도 전북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214-6608)로 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